

36장. 이스라엘 산에 대한 구원의 약속과 새 언약

1. 이스라엘 산에 대한 구원의 약속 (36:1-15)

세일 산에 대한 심판과 대조되는 것은 이스라엘 산들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다. 이스라엘 산들이 이방인과 에돔 사람의 조롱거리와 소유가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이방인들의 노략과 조롱에 대하여서 심판하시고 황폐해진 가나안 땅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스라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고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2. 하나님의 영예의 회복과 새 언약 (36:16-38)

1)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짐 (36:16-21)

36장 후반부에서는 새 언약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신다. 이스라엘이 땅 위에 피를 쏟고 우상으로 자신들을 더럽혔다고 하는데, 땅 위에 피를 쏟은 것은 "무죄한 피, 곧 저희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에게 제사하므로 그 땅이 피에 더러웠도다"(시 106:38)는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그들은 달거리하는 여인처럼 부정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심판하여서 여러 나라에 흩었다 (36:16-19).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와 심판하심으로 다른 나라로 흩어졌지만, 그것은 새로운 문제를 낳았다. 그들이 열국에 흩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와 거룩한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게 된 것이다.

2)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함 (36:22-23)

하나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시고 열국 가운데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죄를 생각하면 영원히 멸망시켜도 부족함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3) 온전히 새롭게 된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의 회복 (36:24-32)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구원은 단순히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변화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첫째, 그들에게 물을 뿌려서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로 씻어주실 것이다. 둘째, 그들의 굳은 마음이 살과 같이 부드럽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상태로 바꿀 것이다. 모세와 맺은 언약을 돌판에 새긴 것과 대비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례를 새겨 주실 것이다. 셋째, 여호와와 신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36:24-27).

여호와께서 그렇게 행하신 결과 그들과 언약이 갱신된다. 그들은 여호와와 백성이 되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36:28).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그들은 풍성한 추수를 누리게 될 것이다. 자연계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큰 복 앞에서 자기들의 이전 죄를 생각하고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그들이 회개한 후에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을 베푸신 후에 그들로 하여금 이전의 죄를 부끄럽게 여기면서 회개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성신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파수꾼의 경고를 바르게 듣게 되는 것은 온전히 원혜이다 (36:29-32).

4) 언약의 복 가운데서 거하는 이스라엘 (36:33-38)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된 그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황무하던 땅이 애굽이 아니라 에덴동산처럼 되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에덴동산을 심으셨듯이 이스라엘을 언약의 땅에 심되 그 백성이 그 안에서 번성케 할 것이다. 창조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신 복이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절기에 모이는 숫자가 많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 회복될 것을 기대하게 한다.